

類經序(2)

內經者，三墳¹⁾之一。蓋自軒轅帝同岐伯·鬼臾區²⁾等六臣，互相討論，發明至理以遺教後世，其文義高古淵微³⁾，上極天文⁴⁾，下窮地紀⁵⁾，中悉人事⁶⁾，大而陰陽變化，小而草木昆蟲，音律⁷⁾象數⁸⁾之肇⁹⁾端，藏府經絡之曲折，靡不縷¹⁰⁾指而臚列¹¹⁾焉。大哉！至哉！垂不朽之仁慈，開生民之壽域，其爲德也，與天地同，與日月並，豈直¹²⁾規規¹³⁾治疾方術已哉！

按晉皇甫士安¹⁴⁾甲乙經¹⁵⁾敘¹⁶⁾曰：黃帝內經十八卷，今鍼經九卷，素問九卷，卽內經也。而或者¹⁷⁾謂素問·鍼經·明堂三書，非黃帝書，似出於戰國。夫戰國之文能是乎？宋臣高保衡¹⁸⁾等敘，業已闢之，此其億度¹⁹⁾無稽²⁰⁾，固不足深辨。而又有目醫爲小道²¹⁾

◆ 『內經』은 三皇(伏羲·神農·黃帝)의 책중 하나이다. 대개 ‘黃帝(軒轅帝)’가 ‘岐伯’과 ‘鬼臾區’ 등 여섯 臣下와 서로 討論하고, 지극한 理致를 밝혀 後世에 가르침을 남긴 것으로, 그 글의 뜻이 高古하며 深遠하고 微妙하여, 위로는 天文를, 아래로는 地紀를, 가운데로는 人事를 갖추었으니, 크게는 陰陽의 變化와 작게는 草木·昆蟲과 그리고 音律·象數의 실마리와 藏府·經絡의 內容을 자세히 가리키고 配列한 것이니 크고도 지극하다. 不朽의 仁慈를 後世에 傳하고 百姓의 壽命을 延長케 한 그 爲德이 天地 日月과 더불어 한가지이니 어찌 한갓 疾病을 다스리는 方術에 지나지 않겠는가?

◆ 晉나라 ‘皇甫士安’의 『甲乙經』 序文에 “『黃帝內經』 18卷은 지금의 『鍼經』 9卷과 『素問』 9卷으로 곧 『內經』이다”라고 한데 或者는 “『素問』·『鍼經』·『明堂』 세 책은 黃帝時代의 책이 아니라 거의 戰國時代에 나왔다”라고 하니 과연 戰國時代의 文字가 그러했겠는가? 宋나라 ‘高保衡’ 등의 序文에 이미 그렇게 적어 놓았으니, 이는 抑止 推測에다 터무니 없는 말로써, 진실로 分辨이 깊지 못한 것이다. 또 醫術을 目的으로 하는 것을 小道로 여기고 아울러 이 책을 또 쓸모없는 것과 같이 放置하는 者가 있으니 이 어찌 큰 知慧와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이라 하겠는가?

- 1)三墳: 삼분; 傳說上の 中國 最古 書籍. ……孔安國의 『尚書序』에 “伏羲神農黃帝의 책을 ‘三墳’이라 한다”라고 하였다.……(商務印書館, 『辭源』)
- 2)鬼臾區: 귀유구; 一說 鬼容區 또는 大鴻이라고도 부름. 上古時代의 醫家. 傳하는 바에 依하면 黃帝의 臣下였으며, 『內經』·『天元紀大論』의 記載에 따르면 鬼臾區가 黃帝와 五行 等 醫學에 關係있는 內容을 論했는데, 實은 後人이 지어낸 說이다.(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 3)淵微: 深遠하고 微妙함.(民衆書林, 『漢韓大字典』)
- 4)天文: 日月星辰 等の 天體가 宇宙間에 分布되고 運行되는 現象. 古人은 風雲雨露霜雪 等の 地文(아래 참조)現象도 天文의 範圍에 들어간다고 보았다. ……(商務印書館, 『辭源』)
地文: 地面·山岳·河海·丘陵·平原의 形狀. ……(商務印書館, 『辭源』)
- 5)地紀: 大地를 잡아매고 있는 밧줄로 ‘地維’라고도 한다. 古代에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고 認識했는데, 神話나 傳說에 따르면, 하늘은 아홉 개의 기둥이 支撐하고 있어, 하늘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하고, 땅은 큰 밧줄이 네 귀퉁이를 잡아매고 있어, 땅이 바른 位置를 가지게 한다. ……(商務印書館, 『辭源』)
- 6)人事: 人間世上의 各種 事情. 『史記』·『太史公自序』에 “夫『春秋』, 上明三王之道, 下辨人事之紀”라고 하였다. ……(商務印書館, 『辭源』)
- 7)音律: 五音六律. 또한 音樂을 가리킨다. ……『後漢書』 28 「桓譚傳(환담전)」에 “因好音律, 善鼓琴”이라 하였고, 『註』에 “宮·商·角·徵·羽, 謂之五聲. 聲成文謂之音. 律謂六律, 黃鍾(황중)·太族(태족)·姑洗(고세)·蕤賓(유빈)·無射(무역)·夷則(이척)”라고 하였다. ……(商務印書館, 『辭源』)
- 8)象數: 『左傳』 僖 15년에 “龜, 象也; 筮(사), 數也. 物生而後有象, 象而後有滋, 滋而後有數”라고 하였고, 『註』에 “言龜以象示, 筮以數告, 象數相因而生, 然後有占, 占所以知吉凶”이라 하였다. 『周易』중에 대개 天日山澤이라 말하는 것이 象이며, 初上九六이라 말하는 것이 數이다.(商務印書館, 『辭源』)
- 9)肇: 조; 비롯하다, 시조, 바로잡다.
- 10)縷: 루; 실, 줄, 자세하다, 잘게 썰다, 누더기.
- 11)臚列: 어열; 진열함, 또 羅列함.(民衆書林, 『漢韓大字典』)
臚: 러; 가족, 살갓, 배, 벌여놓다, 전하다.
- 12)直: 겨우, 근근히.
- 13)規規: 규규; ①작은 모양. ②얼빠진 모양. ③둥근 모양.(民衆書林, 『漢韓大字典』)
- 14)皇甫士安: 皇甫謐(214-282年). 魏晉代의 醫家이며, 文學家임. 字는 士安이고, 初年名은 靜이며, 自號는 玄晏先生이고, 安定·朝那(지금의 甘肅 靈臺)人임. 中年에 風痺症에 걸려, 服石을하여 身體가 極도로 瘦弱해져서 寢床을 甍굴며 심지어 自殺을 하려고까지 하였었다. 後에 醫書의 研究에 專念하여, 『素問』, 『針經』, 『明堂孔穴針灸治要』 等の 三部 醫書를 滙集하여 編輯해서 『針灸甲乙經』을 撰成했다. 이 책은 經絡理論을 설명하고, 古代의 針灸穴位의 位置, 名稱, 取穴法을 統一하여 晉代 以前의 針灸學의 成果를 總結하는데 重大한 貢獻을 하였다. 이는 中國 最古의 針灸學 專門書로서, 後世의 針灸學 發展에 매우 큰 影響을 미쳤다. 이밖에 『帝王世紀』, 『高士傳』, 『烈女傳』, 『逸士傳』, 『玄晏春秋』 等を 著作하였음.(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 15)甲乙經: 『針灸甲乙經』. 書名. 原名은 『黃帝三部針灸甲乙經』인데, 『甲乙經』이라 略稱한다. 皇甫謐이 259年 前後에 撰하였음. 모두 10卷인데 後에 12卷, 128篇으로 改編하였음. 本書는 『素問』, 『針經』(곧 『靈樞』의 古名)과, 『明堂孔穴針灸治要』의 三書를 分類하여 다시 合編한 것이다. 主로 臟腑經絡, 脈診理論, 臟穴部位, 針灸法과 禁忌, 病因病理 및 各種 疾病의 證候, 針灸取穴 等を 論述하였다. 이는 中國에서 가장 오래고 內容이 비교적 完整된 針灸書이며, 『黃帝內經』의 古典本을 研究하는데 重要한 文獻이다. 本書는 古代의 針灸療法에 대하여 系統的인 歸納과 整理를 하였으며, 針灸學의 發展에 重要한 促進作用을 하였다.(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 16)敘: 서; 차례, 늘어서다, 서문(序와 同字).
- 17)或者: 高保衡과 林億 등을 말한다. 『新校正黃帝鍼灸甲乙經』의 序에 “……或曰: 素問·鍼經·明堂, 三部之書, 非黃帝書, 似出於戰國……”라 되어있다.(譯註)
- 18)高保衡: 고보형; (11세기) 北宋의 醫家. 1068-1085年 神宗時의 國子博士로서 醫學에 精通하여, 方藥 病機를 깊이있게 解明한. 北宋政府에서 校正醫書局을 세우자 그는 『黃帝內經素問』, 『脈經』 等の 古代醫書를 整理하는 일에 參加하여 古代醫藥의 遺産을 繼承 發展하는 데 상당한 貢獻을 하였음.(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 19)億度: 억탁; 億測.(民衆書林, 『漢韓大字典』)
億: 억; 억(數의 단위), 헤아리다, 판단하다, 가늠(臆과 通用).

并是書且弁髦¹⁾置之者，是豈巨慧明眼人歟？

觀坡僂²⁾楞伽經³⁾跋⁴⁾云：經之有難經，句句皆理，字字皆法。亦豈知難經出自內經而僅⁵⁾得其什一⁶⁾，難經而然，內經可知矣。夫內經之生全民命，豈殺⁷⁾於十三經⁸⁾之啓植民心。故玄晏先生曰：人受先人之體，有八尺之軀，而不知醫事，此所謂遊魂⁹⁾耳。

雖有忠孝之心，慈惠之性，君父危困，赤子¹⁰⁾塗地¹¹⁾，無以濟¹²⁾之，此聖賢所以精思極論，盡其理也。由此言之，儒其可不盡心是書乎？奈何今之業醫者，亦置靈素於罔¹³⁾聞，昧¹⁴⁾性命之玄要，盛盛虛虛而遺人夭殃，致邪失正而絕人長命，所謂業擅¹⁵⁾專門者如是哉？此其故，正以經文奧衍¹⁶⁾，研閱誠難，其於至道未明，而欲冀¹⁷⁾夫通神運微，仰大聖上智於千古之邈¹⁸⁾，斷乎不能矣。

自唐以來，雖賴¹⁹⁾有啓玄子之註，其發明玄秘²⁰⁾多，而遺漏²¹⁾亦復不少，蓋有遇難而默者，有於義未始合者，有互見深藏而不便檢閱者。凡其闡揚未盡，靈樞未註，皆不能無遺憾焉。及乎近代諸家，尤不過順文敷演²²⁾，而難者仍未能明，精處仍不能

◆ ‘蘇軾’의 『楞伽經』跋文을 보면 “經典에 『難經』이 있으니，句句節節 다理致요 法이다”라고 하였는데，또한 『難經』이 『內經』으로부터 나왔으되 겨우 (『內經』의) 10분의 1 水準밖에 안됨을 알 것이니，『難經』이 이렇다면 『內經』의 水準을 가히 알 것이다. 무릇 『內經』이 百姓의 生命을 살리고 온전히 하였으니，어찌 十三經이 百姓을 깨우치게 한 것 보다 功이 덜 하겠는가? 그래서，‘玄晏先生’은 “사람은 어버이에게 몸을 얻어 8尺의 몸을 가지고 있으나，醫事를 알지 못하면 이는 이른바 떠도는 魂 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 비록 忠孝의 마음과 慈惠의 性品이 있어도，임금과 어버이가 위험에 처해 있고 百姓이 어려운 處地에 빠져 있을 때에 그들을 구하지 못하게 되니，이것이 聖賢께서 생각을 精微롭게 하고 講論을 지극히 하여 그 理致에 專心한 이유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말하노니，과연 儒家라고 해서 이 책에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것이 옳겠는가? 게다가 지금에 醫를 業으로 삼는 자가 또한 『靈樞』·『素問』에는 제대로 귀기울이지 않고，性命의 玄妙한 要諦에는 눈이 어두워，盛한 것을 더욱 盛하게 하고 虛한 것을 더욱 虛하게 하여 사람들에게 夭折의 災殃을 주며，邪氣에 이르고 正氣를 잃게 하여 長壽할 수 있는 목숨을 끊어 버리게 하니，어찌하여 이른바 醫業에 專門家라는 자들이 이와 같은가? 이런 까닭은 바로 內經의 글이 너무 深遠하여 研究하고 자세히 살펴도 진실로 어려운 道에 이르기가 分明치 않고，通神運微하기를 바래도，千古의 거리에서 大聖과 上智의 뜻을 새긴 것이라서 단연코 기대하기가 어렵다.

◆ 唐나라 以來로 비록 ‘啓玄子’의 註가 있어 의지할 만하지만，玄妙하고 神秘함을 많이 밝힌 반면에 또한 빠진것이 적지 않으니，대체로 어려운 部分에서는 言及하지 않은 곳이 있고 뜻이 처음과 符合하지 않는 곳도 있고 서로 견주어 깊이 감추어진 뜻을 찾으려 해도 자세히 살피기 불편한 곳도 있다. 대개 뜻은 열여 필침이 未盡하고 『靈樞』의 註는 있지도 않으니 모두가 有感일 수 밖에 없다. 近來 諸家에 와서는 더욱 글에만 따라 설명을 늘어놓는 것에 지나지 않아 어려운 部分과 精微롭게

20)無稽: 무계; 터무니 없음, 무근함. (民衆書林, 『漢韓大字典』)

21)小道: 儒家에서 禮教를 널리 펼치는 以外의 學說이나 技藝에 對해 낮게 稱한 것. 『論語』「子長」에 “雖小道，必有可觀者焉”이라 하였는데，宋代 朱喜는 『集註』에서 “小道，如農圃醫卜之屬”이라 하였다.……(商務印書館, 『辭源』)

1)弁髦: 변모; 弁은 緇布冠(치포관)으로서 冠禮를 행하기 전에 잠시 쓴 것, 髦는 총각의 더듬머리. 冠禮가 끝나면 모두 소용 없게 되므로 無用之物的 比유로 쓰임. (民衆書林, 『漢韓大字典』)

2)坡僂: 파선; 宋代의 蘇軾(소식). 字는 子瞻(자침), 號는 東坡居士이다. 後人이 그의 才能을 높이하여 ‘坡仙’이라 稱하였다.……(商務印書館, 『辭源』)
僂: 仙과 同字.

3)楞伽經: 능가경; 佛經名. 『楞伽阿跋多羅寶經』이라 하며, 或 『大乘入楞伽經』이라 翻譯한다.……(商務印書館, 『辭源』)

4)跋: 발; 跋文(책의 끝에 그 내용과 그에 관계되는 사항을 간단하게 적은 글). 序文의 對가 된다.

5)僅: 근; 겨우, 조금, 거의.

6)什一: 十分之一. (民衆書林, 『漢韓大字典』)

7)殺: 쇄; 덜다(減削함).

8)十三經: 열 세가지의 經書. 곧 周易書經詩經周禮儀禮禮記春秋左氏傳(춘추좌씨전)春秋公羊傳(춘추공양전)春秋穀梁傳(춘추곡량전)孝經論語孟子. (民衆書林, 『漢韓大字典』)

9)遊魂: 유혼; 육체에서 떠난 영혼. (民衆書林, 『漢韓大字典』)

10)赤子: ①갓난 아이, 꿇대. ②임금의 治下에서 그 恩澤을 받는 백성. (民衆書林, 『漢韓大字典』)

11)塗地: 도지; 敗壞(패괴)되어 收拾(수습)이 불가능함에 이른 것. 『晉書』「吳澤傳」에 “是時軍荒之後，百姓饑饉，死亡塗地”라고 하였다. (商務印書館, 『辭源』)

12)濟: 제; 건너다, 나루, 건지다, 빈곤이나 어려움에서 구제하다.

13)罔: 망; 無知. 『禮』「小儀」에 “衣服在躬，而不知其名爲罔”이라 하였다. (商務印書館, 『辭源』)

14)昧: 매; 어둡다, 어리석다.

15)擅: 찬; 천단(제멋대로 하는 일, 전횡).

16)奧衍: 오연; 심오함, 의미가 深遠함. (民衆書林, 『漢韓大字典』)

17)冀: 기; 바라다, 원하다.

18)邈: 막; 멀다, 아득히 멀다, 경멸하다.

19)賴: 회; 힘입다, 의뢰하다.

20)儘: 진; 다하다(盡과 同字), 조금, 억지로.

21)遺漏: 유루; ①빠짐. ②새어버림. (民衆書林, 『漢韓大字典』)

22)敷演: 부연; 敷衍과 같다. 알기 쉽게 자세히 늘어놓아 설명함. (民衆書林, 『漢韓大字典』)

發, 其何裨¹⁾之與有?

初余究心是書, 嘗爲摘²⁾要, 將以自資, 繼而繹之, 久久則言言金石, 字字珠璣, 竟不知孰可摘而孰可遺, 因奮然³⁾鼓念, 冀有以發隱就明, 轉難爲易, 盡啓其秘而公之於人, 務俾⁴⁾後學了然, 見便得趣⁵⁾, 由堂入室⁶⁾, 具悉本原⁷⁾, 斯⁸⁾不致誤己誤人, 咸臻⁹⁾至善.

於是乎詳求其法, 則惟有盡易舊制, 顛倒一番, 從類分門¹⁰⁾, 然後附意闡¹¹⁾發, 庶晰¹²⁾其經¹³⁾, 然懼擅動聖經, 猶未敢也. 粵¹⁴⁾稽¹⁵⁾往古, 則周有扁鵲之摘難, 晉有玄晏先生之類分, 唐有王太僕之補削, 元有滑撝寧¹⁶⁾之撮¹⁷⁾鈔¹⁸⁾, 鑒¹⁹⁾此四君子而後意決. 且此非十三經之比, 蓋彼無須類, 而此欲醒²⁰⁾瞶²¹⁾指迷, 則不容不類以求便也.

由是徧索兩經, 先求難易, 反復更秋, 稍得其緒, 然後合兩爲一, 命曰類經. 類之者, 以靈樞啓素問之微, 素問發靈樞之秘, 相爲表裏, 通其義也. 兩經既合, 迺²²⁾分爲十二類.

夫人之大事, 莫若死生, 能葆²³⁾其真, 合乎

해야하는 부분은 아예 밝히지를 못했으니, 그 어찌 도움되는 바가 있겠는가?

◆ 처음 내가 이 책에 마음을 쏟은 것은, 일찌기 要點을 추려내기 위해서였다. 내 자신의 스스로의 資質로 계속 뜻풀이를 하는데, 오래 하면 할수록 句句節節이 모두 珠玉같아, 마침내 무엇을 추려내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알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奮然히 생각을 부추켜, 숨겨진 뜻을 밝히고 어려운 것을 쉽게 하고 秘密스러운 것을 열어 사람들에게 公開하기를 바라며, 後學들로 하여금 了然하게 하고 보기에 편하게 하여 뜻을 얻을 수 있게 하고 段階를 밟아 배움에 이르게 하고 本原을 다 갖추게 하고 자신과 남을 잘못에 이르지 않게 하여, 모두 至極한 善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데 힘썼다.

◆ 이에 그 法을 詳細히 구하자면 오직 옛 制度를 바꾸고, 한번 뒤집어서 類에 따라 門을 나눈 후에, 뜻을 附加하여 밝혀야만 감추어진 眞理가 거의 明確해질 것이다. 그러나 聖賢의 經典의 뜻을 맛대로 바꾸는 것일까 하여 오히려 果敢하지 못했다. 옛 것을 詳考하여 보면 周나라에 '扁鵲'이 『內經』을 추려낸 『難經』이 있고, 晋나라에 '皇甫謐'이 『靈樞』를 類로 나누어 놓은 『鍼灸甲乙經』이 있고, 唐나라에 '王冰'이 『素問』의 內容에 보태고 각은 『次注黃帝素問』이 있고, 元나라에 '滑壽'가 『素問』의 要點을 추려내어 抄錄한 『讀素問鈔』가 있어, 이 네 君子를 거울삼은 후에 決心을 하게 되었다. 또한 이것이 十三經에 比較할 것은 아니지만, 대개 十三經은 모름지기 類가 없으나, 이것은 눈멀고 미혹된 것을 깨우고 가리키려하여 類로써 便利를 구한 것이다.

◆ 이로 말미암아 兩經(『素問』·『靈樞』)을 두루 찾아와, 먼저 어려운 것을 쉽게 하기를 몇 해 동안 反復하여, 차차 그 실마리를 찾은 후에 兩經을 합하여 하나로 해서 『類經』이라 이름붙였다. 類라는 것은 『靈樞』로서 『素問』의 작은 部分까지 열어놓고, 『素問』으로서 『靈樞』의 神秘를 밝힌 것이니, 서로 表裏가 되며 뜻이 서로 통한다. 또 兩經을 합하여 다시 12類로 나누어 만들었다.

◆ 대개 사람의 큰 일에는 죽고 사는 것만 같은 것이 없으니, 능히 그 眞

1)裨: 비; 돕다, 보좌하다, 보태다, 주다.

2)摘: 적; 따다, 요점만 가려쓰다, 악기를 타다.

3)奮然: 분연; 분발하여 일어나는 모양.(民衆書林, 『漢韓大字典』)

4)俾: 비; 더하다, 시키다, 좇다.

5)趣: 취; 달리다, 향하다, 미치다, 다다르다.

6)入室: 『論語』「先進」에 “由也升堂矣, 未入於室也”라고 하였으며, 『疏』에 “言子路之學識深淺, 譬如自外入內, 得其門者. 入室爲深, 顏淵是也; 升堂次之, 子路是也”라고 하였다. 由는 子路의 이름이다. 後에 學文이나 技藝의 成就가 精深한 段階에 到達한 것을 比喻하는 데 쓰였다.……(商務印書館, 『辭源』)

7)本原: 本源과 같다. ①根源 ②근원에 기본을 둠.(民衆書林, 『漢韓大字典』)

8)斯: 사; 이(此와 뜻이 같음), 어조사(무의미한 助字).

9)臻: 진; 이르다, 미치다, 모이다.

10)門: 문(분류상의 구별. 또 학술의 한 종류).

11)闡: 찬; 열다, 널리 퍼지게 하다, 넓히다, 분명하다.

12)晰: 식; 밝다, 분명하다.
皙: 식; 밝다, 분명한 모양.

13)經: 은; 감추다, 활집, 싸다, 둘러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다.

14)粵: 월; 語助辭(發語辭, 越과 同字).

15)稽: 계; 상고하다(사물을 고찰함), 헤아리다, 머무르다.

16)滑撝寧: 활영녕; 滑壽. 元代의 醫學家. 字는 伯仁, 晚號는 撝寧生. 原籍은 襄城(지금의 河南 襄城)인데, 후에 儀眞(지금의 江蘇에 屬함)과 余姚(지금의 浙江에 屬함)로 移居함. 어려서부터 儒學을 배워 詩文에 能했음. 京口(지금의 鎮江)의 名醫 王居中이 儀眞에 寓居할 때 그를 隨從하여 醫學을 배웠는데, 『素問』, 『難經』 등의 古醫書를 精讀해서 깊이 깨달았음. 『讀素問鈔』, 『難經本義』, 『診家樞要』 등을 著作함. 후에 東平 高洞陽으로부터 針法을 배워 針術에 精通함. 일찍이 針砭法을 써서 難產 등 多種의 病證을 治療하였고, 經絡理論에 대하여 많은 研究를 해서, 督任脈은 마땅히 十二經과 대등하게 論해야 한다고 보아, 1314년에 『十四經發揮』을 著作함. 經絡腧穴의 考訂에 상당한 貢獻을 하였으며, 針灸學의 發展에 상당한 影響을 끼쳤음.(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17)撮: 활; 取하다, 손가락으로 집다, 모으다.

18)鈔: 초; 노략질하다, 집어내다, 베끼다.

19)鑒: 감; 鑑과 同字.

鑑: 감; 거울, 보다, 거울에 비추어 보다, 살피다, 성찰하다, 생각하다.

20)醒: 성; 깨다, 술이 깨다, 잠이 깨다, 깨닫다, 도리에 맞고 성실한 일.

21)瞶: 귀; 장님, 소경, 눈이 어두움.

22)迺: 내; 이에(乃와 同字), 너(乃와 同字), 비로써.

天矣，故首曰攝生類。生成之道，兩儀¹⁾主之，陰陽既立，三才位矣，故二曰陰陽類。人之有生，藏氣爲本，五內²⁾洞然，三垣³⁾治矣，故三曰藏象類。欲知其內，須察其外，脈色通神，吉凶判矣，故四曰脈色類。

藏府治內，經絡治外，能明終始，四大⁴⁾安矣，故五曰經絡類。萬事萬殊，必有本末，知所先後，握其要矣，故六曰標本類。人之所賴，藥食爲天，氣味得宜，五宮⁵⁾強矣，故七曰氣味類。駒隙⁶⁾百年，誰保無恙，治之弗失，危者安矣，故八曰論治類。

疾之中人，變態莫測，明能燭幽，二豎⁷⁾遁⁸⁾矣，故九曰疾病類。藥餌不及，古有鍼砭，九法⁹⁾搜¹⁰⁾玄，道超凡矣，故十曰鍼刺類。至若天道茫茫¹¹⁾，運行今古，苞¹²⁾無窮，協¹³⁾惟一，推之以理，指諸掌¹⁴⁾矣，故十一曰運氣類。又若經文連屬¹⁵⁾，難以強分，或附見於別門，欲求之而不得，分條索隱，血脈貫¹⁶⁾矣，故十二曰會通類。

彙分¹⁷⁾三十二卷，此外復附著圖翼十五卷。

氣를 保全하면 하늘에 合할 수 있을 것이므로 첫째를 「攝生類」라 하였다. 生成의 道는 兩儀가 主管하는 것이니, 陰陽이 선다면 三才가 제 자리를 잡은 것이므로 둘째를 「陰陽類」라 하였다. 사람이 生命을 가짐에 그 藏氣가 根本이 되니, 五藏에 通達하면 三焦(三恒)가 다스려지므로 셋째를 「藏象類」라 하였다. 人體의 內部를 알고자 할 때는 모름지기 그 外部를 살펴야 하니, 脈色이 神과 통하면 吉凶을 判斷할 수 있을 것이므로 넷째를 「脈色類」라 하였다.

◆ 藏府는 안으로 다스리고 經絡은 밖으로 다스려야 하니, 능히 終始를 밝히면 사람의 몸이 便安해질 것이므로 다섯째를 「經絡類」라 하였다. 모든 일들이 각각 다르나 반드시 本末이 있을 것이니, 먼저 하고 뒤에 할 바를 알면 그 要諦를 잡을 수 있을 것이므로 여섯째를 「標本類」라 하였다. 사람이 依支하는 바는 藥과 음식을 天理로 삼으니, 氣味가 마땅함을 얻으면 五藏이 강해질 것이므로 일곱째를 「氣味類」라 하였다. 人生이 무상함에, 누가 자신의 몸을 병이 없이 保存하겠는가? 병은 다스림에 過失이 없다면 危急한 자가 便安해 질 것이므로 여덟째를 「論治類」라 하였다.

◆ 病이 사람에게 들면 變化와 狀態를 豫測하기 어려우나, 밝은 빛이 어두운 곳을 밝힌다면 病魔가 달아날 것이므로 아홉째를 「疾病類」라 하였다. 藥과 飲食이 治療에 미치지 못 할 때에는 옛부터 鍼砭이 있었으니, 鍼術九法으로 玄妙함을 찾을 수 있다면 道가 보통사람은 넘을 것이므로 열째를 「鍼刺類」라 하였다. 天道와 같은 것은 茫茫하여도 예나 지금이나 運行되고, 無窮함을 싸고 있어도 오직 하나와 和合할 것이니, 理致로서 推論한다면 손바닥을 가리키는 것과 같이 쉬울 것이므로 열한째를 「運氣類」라 하였다. 또한 『內經』의 連續된 글을 어렵게 抑止로 나누어 버리거나 別門을 붙여 보인다면, 그것(『內經』의 참뜻)을 구하고자 하여도 얻지 못 할 것이나, 條目으로 나누어 감추어진 것을 찾는다면 血脈이 통하듯(『內經』의 참뜻) 알 수 있을 것이므로 열두번째를 「會通類」라 하였다.

◆ 모아서 다시 나누면 32卷인데 이 외에 『圖翼』 15卷을 追加로 著述하였

23)葆: 보; 더부룩히 나다, 평성귀, 청찬하다, 보전하다(保와 通用), 포대기(褓와 通用), 보배(寶와 通用), 성채(堡와 通用).

1)兩儀: 1)①하늘과 땅. ②陰과 陽.(民衆書林, 『漢韓大字典』) (2)天地. 『易』「繫辭上」에 “是故易有太極, 是生兩儀”라고 하였고, 『疏』에는 “不言天地而言兩儀者, 指其物體; 下與四象相對, 故曰兩儀, 謂兩體容儀也”라고 하였다.(商務印書館, 『辭源』)

2)五內: 五中(아래 참조)과 같다. 『後漢書』 48 「董祀妻傳」에 실려있는 蔡琰(재염)의 「悲憤」詩에 “見此崩五內, 恍惚生狂癡”라 하였다.(商務印書館, 『辭源』)

五中: 五臟. 『素問』「陰陽類論」에 “黃帝燕坐, ……而問雷公曰: ‘陰陽之類, 經脈之道, 五中所主, 何藏最貴?’”라고 하였다.(商務印書館, 『辭源』)

3)三垣: 삼원; (1)中國古代天文學家들이 天體의 恒星을 三垣二十八宿 및 其他星座로 나누었는데, 三垣은 곧 太微垣紫微垣天市垣이다.(商務印書館, 『辭源』) (2)張介賓은 『類經附翼』 第3卷 「求正錄」 「三焦包絡命門辨」에서 “……夫三焦者, 五藏六府之總司……藏府之外爲三焦也……三焦爲藏府之外衛, 心包絡爲君主之外衛”라고하여 모든 臟腑를 싸고 있는 것을 三焦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三垣은 三焦를 말한다. 자세한 것은 『類經附翼』 第3卷 「求正錄」 「三焦包絡命門辨」을 참고하기 바란다.(譯註)

4)四大: 『東醫寶鑑』 「身形」 「四大成形」에 “釋氏論曰: 地水火風, 和合成人. 筋骨肌肉, 皆屬乎地; 精血津液, 皆屬乎水; 呼吸溫煖, 皆屬乎火; 靈明活動, 皆屬乎風. 是以, 風止則氣絕; 火去則身冷; 水竭則無血; 土散則身裂. ○上陽子曰: 髮齒骨甲, 假之于地; 涕精血液, 假之于水; 溫煖燥熱, 假之于火; 靈明活動, 假之于風; 大四假合而生也. 地之盛也, 骨如金; 水之盛也, 精如玉; 火之盛也, 氣如雲; 風之盛也, 智如神”이라 하였으니, 여기서의 ‘四大’는 사람의 몸을 의미한다.(譯註)

5)五宮: 精神을 藏하고 있는 五臟을 말함. 『素問』 「生氣通天論篇」: “陰之所生, 本在五味, 陰之五宮, 傷在五味”…….(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 「基礎理論編」)

6)駒隙: 구극; 망아지가 벽의 틈을 지난다는 뜻으로, 세월이 빨리 지나 인생의 덧없음의 비유.(民衆書林, 『漢韓大字典』)

7)二豎: 이수; 병, 질병, 또 病魔(병마).晉나라 景公이 병으로 누워 있을 때 病魔가 아이 둘로 化身하여 왔다는 故事에서 나온 말.(民衆書林, 『漢韓大字典』) 豎: 수; 豎의 俗字.

8)遁: 둔; 달아나다, 피하다, 숨다.

9)九法: 九鍼이 各種 自然現象에 相應함을 나타내는 말. 『靈樞』 第78 「九鍼論」에 “岐伯曰: 九鍼者, 天地之大數也, 始於一而終於九, 故曰: 一以法天, 二以法地, 三以法人, 四以法時, 五以法音, 六以法律, 七以法星, 八以法風, 九以法野”라고 하였다.(譯註)

10)搜: 수; 찾다, 가리다, 고르다, 많다.

11)茫茫: 망망; 넓고 멀어 아득한 모양.(民衆書林, 『漢韓大字典』)

12)苞: 포;包裹, 包와 通한다.……『荀子』 「非十二子」에 “恢然如天地之苞萬物”이라 하였다.……(商務印書館, 『辭源』)

13)協: 협; 맞다, 화합하다, 적합하다.

14)指諸掌: 指掌를 이른다.(譯註)

指掌: 손바닥을 가리킨다는 뜻으로, 일이 펴 쉽거나 명백함을 이룸.(民衆書林, 『漢韓大字典』)

15)連屬: 연속; 連續.(民衆書林, 『漢韓大字典』)

16)血脈貫: 血脈貫通을 이른다.(譯註)

血脈貫通: 몸에 血脈이 통하고 있다는 뜻으로, 문장 등 한 篇의 전후가 연결이 잘 됨을 이룸.(民衆書林, 『漢韓大字典』)

17)彙分: 휘분; 모아서 나눔, 수집하여 分類함.(民衆書林, 『漢韓大字典』)

彙: 휘; 고슴도치, 무리, 모으다.

蓋以義有深遠¹⁾而言不能該²⁾者，不拾³⁾以圖，其精莫聚；圖象雖顯而意有未達者，不翼以說，其奧難窺。自是而條理⁴⁾分，綱目⁵⁾舉，晦者明，隱者見，巨細⁶⁾通融⁷⁾，岐⁸⁾貳⁹⁾畢¹⁰⁾徹¹¹⁾，一展卷而重門洞開，秋毫在目，不惟廣禪乎來學，即凡志切尊生者，欲求茲妙，無不信手可拈¹²⁾矣。

是役也，余誠以前代諸賢，註有未備，間多舛錯¹³⁾，掩¹⁴⁾質埋¹⁵⁾光，俾¹⁶⁾至道不盡明於世者，迨¹⁷⁾四千餘祀¹⁸⁾矣。因敢忘陋效贗¹⁹⁾，勉圖蚊負²⁰⁾，固非敢弄斧班門²¹⁾，然不屑²²⁾沿²³⁾街持鉢²⁴⁾，故凡遇駁正²⁵⁾之處，每多不諱²⁶⁾，誠知非雅²⁷⁾，第以人心積習既久，訛以傳訛，即決長波，猶虞難滌²⁸⁾，使辨之不力，將終無救正日矣，此余之所以載思而不敢避也。

吁²⁹⁾！余何人斯，敢妄正先賢之訓，言之未

다. 대개 뜻이 深遠하여 말로서 說明하기 어려운 곳이 있어 그림으로써 補充하지 않으면 精微함을 모을 수가 없으며, 그림과 形象이 비록 나타나 있으나 意味가 통하지 않는 곳이 있어 說明으로써 補充하지 않으면 深奧함을 엿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가닥을 나누고 項目을 세워, 어두운 것을 밝히고 감추어진 것을 들어내며 크고 작은 것들을 한꺼번에 녹이고 갈래져 있는 것들을 남김 없이 꿰었으니, 책을 한 번 펴면 거듭된 門이 한꺼번에 열릴 것이며 아주 작은 것이라도 다 눈에 들어올 것이다. 다만 未來의 後學들에게만 널리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意志가 간절하고 生命을 尊重하는 者도 玄妙함을 구하고자 한다면 손으로 가히 잡을 수 있음을 믿게 될 것이다.

◆ 이 일을 하면서 내가 前代 諸賢의 글을 誠實히 考察해봄에, 註에 未備한 곳과 사이사이 錯亂된 곳과 眞實이 묻혀버린 곳이 있어, 至極한 道를 世上에 밝히지 못한 것이 4千餘年에 이르렀다. 이로 因하여 敢히 鄙淺한 것을 妄覺하고 높은 것만 흥내내어 力量의 不足함에도, 堪當하기 벅찬 일을 圖謀하였으니, 眞實로 분수를 모르는 무모한 行動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스님이 바리때를 쥐고 길을 따라가기를 꺼리지 않는 것과 같이, 論駁하여 바로잡아야 할 곳을 만나면 每番 꺼림이 없었으니, 참으로 이것이 고상하지 않은 일임을 잘 안다. (그러나) 다만 사람의 마음이란 習慣이 싸여 오래 되면, 訛傳된 것을 그대로 訛傳시키기 마련이니, 곧 제방이 터져 오래 파도가 일면, 오히려 씻어 버리기 어려울까 걱정이 된다. 그래서 올바르게 分辨하도록 만드는데 힘쓰지 않으면 장차 바른 時節을 구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내가 (나의) 생각을 기재하면서 敢히 피하고 꺼리지 않는 理由이다.

◆ 아! 나는 어떤 사람이기에 先賢의 가르침을 妄靈되이, 敢히 바로잡겠다

1)深遠: 심수; 학술의론 등이 深遠함.(民衆書林, 『漢韓大字典』)

2)該: 해; 갖추다, 모두 맞다(일치함).

3)拾: 습; 줍다(습득함).

4)條理: 조리; 사물의 가닥, 또는 경로. 脈絡.(民衆書林, 『漢韓大字典』)

5)綱目: 강목; 1)綱領과 條目. 事物의 大別과 小別.(民衆書林, 『漢韓大字典』) (2)書籍의 項目編制를 가리킨다.(商務印書館, 『辭源』)

6)巨細: ①크고 작음. ②크고 작은 것의 구별 없이 一切.(民衆書林, 『漢韓大字典』)

7)融: 융; 화합하다, 녹다.

8)岐: 기; 갈림길.

9)貳: 이; 둘, 두개.

10)畢: 필; 마치다, 끝내다, 모두.

11)徹: 철; 통하다, 뚫다, 환하다, 밝다.

12)拈: 님; 집다, 손가락으로 집어 비틀다, 집어들다.

13)舛錯: 천착; 錯亂(착란)함.(民衆書林, 『漢韓大字典』)

舛: 어그러지다, 어지럽다.

錯: 섞이다, 어지럽다.

14)掩: 엄; 가리다, 보이지 않게 가리다, 닫다.

15)埋: 매; 묻다, 매우다.

16)俾: 비; 하여금(시킴).

17)迨: 태; 미치다, 이르다.

18)祀: 사; 제사, 해(年).

19)效贗: 효빈; (贗은 贗과 同字.) 越나라의 미인 西施(서시)가 불쾌한 일이 있어 얼굴을 찡그렸더니 한 醜女가 그걸 보고 흉내 냈다는 故事에서 나온 말로서, 무턱대고 남의 흉내를 냄을 이룸.(民衆書林, 『漢韓大字典』)

效: 본받다, 본받아 배우다.

贗: 찡그리다, 이맛살을 찌푸리다.

20)蚊負: 문부; 蚊蚋負山(문예부산)을 이른다.(譯註)

蚊蚋負山: 역량이 부족하여 중임을 감당할 수 없음의 비유.(民衆書林, 『漢韓大字典』)

蚊蚋: 모기.

21)弄斧班門: 농부반문; 班門弄斧를 이른다.(譯註)

班門弄斧: 魯나라의 名工 班輸(반수)의 門前에서 도끼를 함부로 휘두른다는 뜻으로, 자기의 분수를 모름을 나무라는 말.(民衆書林, 『漢韓大字典』)

22)不屑: 불설; 탐탁하게 여기지 아니함. 우습게 여겨 마음에 두지 아니함.(民衆書林, 『漢韓大字典』)

23)沿: 연; 따르다, 길을 따르다.

24)鉢: 발; 바리때, 중의 밥그릇.

25)駁正: 박정; 논평하여 바로잡음.(民衆書林, 『漢韓大字典』)

26)諱: 휘; 꺼리다, 싫어하다, 피하다, 숨다.

27)雅: 아; 바르다, 올바르다, 우아하다, 고상하다.

28)滌: 척; 닦다, 씻다, 빨다.

29)吁: 우; 탄식하다(아 하고 탄식하는 소리).

竟，知必有闕余之謬而隨議其後者，其是其非，此不在余而在乎後之明哲矣。雖然，他山之石，可以攻玉，斷流之水，可以鑒形，卽壁影螢光，能資志士，竹頭木屑¹⁾，曾利兵家，是編者倘亦有千慮之一得²⁾，將見擇於聖人矣，何幸如之？

獨以應策多門，操觚³⁾隻⁴⁾手，一言一字，儉⁵⁾隙⁶⁾毫端⁷⁾，凡歷歲者三旬，易稿⁸⁾者數四，方就其業。所謂河海一流，泰山一壤，蓋亦欲共掖其高深耳。後世有子雲⁹⁾，其憫¹⁰⁾余勞而錫¹¹⁾之斤¹²⁾正焉，豈非幸中又幸？而相成之德，謂孰非後進之吾師云？

時大明天啓四年，歲次甲子，黃鍾¹³⁾之吉¹⁴⁾，景岳子自序於通一齋。

하는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반드시 나의 誤謬를 내려다 보고 뒤에 할 말을 미리 따라 論議하는 자가 있을 줄은 알지만, 그 옳고 그름의 判斷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以後의 明哲한 後學에게 있을 것이다. 비록 그러하나, 他山之石 이라도 구슬로 갈 수 있고 흐르지 않는 물이라도 形體를 비출 수 있으며, 벽에 비친 반딧불의 빛일 지라도 志操있는 선비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땃조각과 대팻밥이라도 일찌기 兵家를 이롭게 할 수 있었듯이, 이 책도 아마 천 번의 생각 끝에는 한 번의 得이라도 있을 것이다. 將次 이 책이 (미래의) 聖人에게 선택된다면 어떤 행운이 이와 같겠는가?

◆ 홀로 많은 門을 計劃하되 다만 한 손으로 한 글씩 한 자씩 틈을 내어 붓끝으로 적었으니 大略 期間이 30年이 걸리었고 草稿를 바꾸기도 네 번이나 하여, 바야흐로 이 일을 成就하였다. 이른바 河海도 한 물줄기요 泰山도 한 흙덩이라 하니, 대개 또한 『內經』의 古高하고 深遠함을 共有하고자 할 따름이다. 後世의 子孫들이 나의 勞苦를 불쌍히 여겨 바른 것을 살펴 준다면 이 어찌 多幸중 多幸이 아니리오? 또한 서로 이루어지는 德이 되니 누가 後進이 나의 스승이 아니라 이르겠는가?

◆ 때는 明나라 天啓 4年, 甲子年 11月 1日, 景岳이 通一齋에서 스스로 序

하다.

1)竹頭木屑: 죽두목설; 땃 조각과 대팻밥. 쓸데 없는 물건의 비유. 晉나라의 陶侃(도간)이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나중에 잘 이용한 故事가 있음.(民衆書林, 『漢韓大字典』)
屑: 가루, 부스러기, 부수다.
2)千慮之一得: 千慮一得을 말한다.(譯註)
千慮一得: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도 많은 생각 가운데에는 간혹 좋은 생각이 있음.(民衆書林, 『漢韓大字典』)
3)操觚: 조고; 글을 씀. 文筆에 중사함.(民衆書林, 『漢韓大字典』)
4)隻: 척; 하나, 짝(한 쌍의 한 쪽, 외짝).
5)儉: 투; 흠치다, 탐내다, 가볍다, 구차하다.
6)隙: 극; 틈, 여가.
7)毫端: 호단; 붓 끝. (民衆書林, 『漢韓大字典』)
8)稿: 고; 초고, 초안.
9)子雲: 後孫을 말한다. 雲은 八代孫을 이르는데, 곧 子孫曾孫玄孫來孫昆孫(손손)仍孫雲孫의 順이 된다.(譯註)
10)憫: 민; 불쌍히 여기다, 가엾게 생각하다.
11)錫: 석; 주다.
12)斤: 근; 도끼, 베다, 살피다(明察하는 모양), 삼가다(근신하는 모양).
13)黃鍾: 황중; 陰曆 十一月의 別稱.(民衆書林, 『漢韓大字典』)
14)吉: 길; 초하루.